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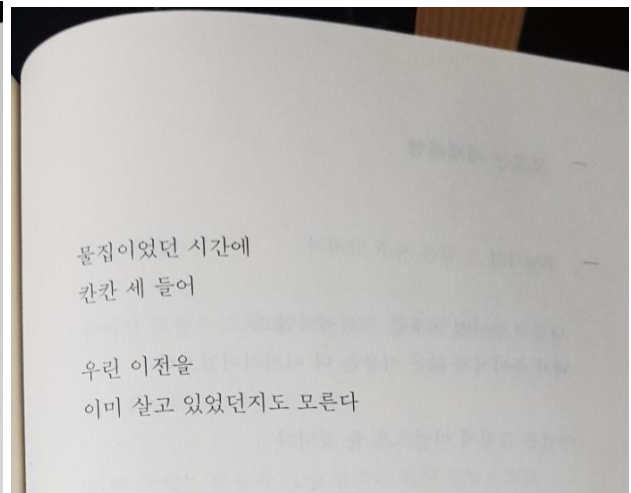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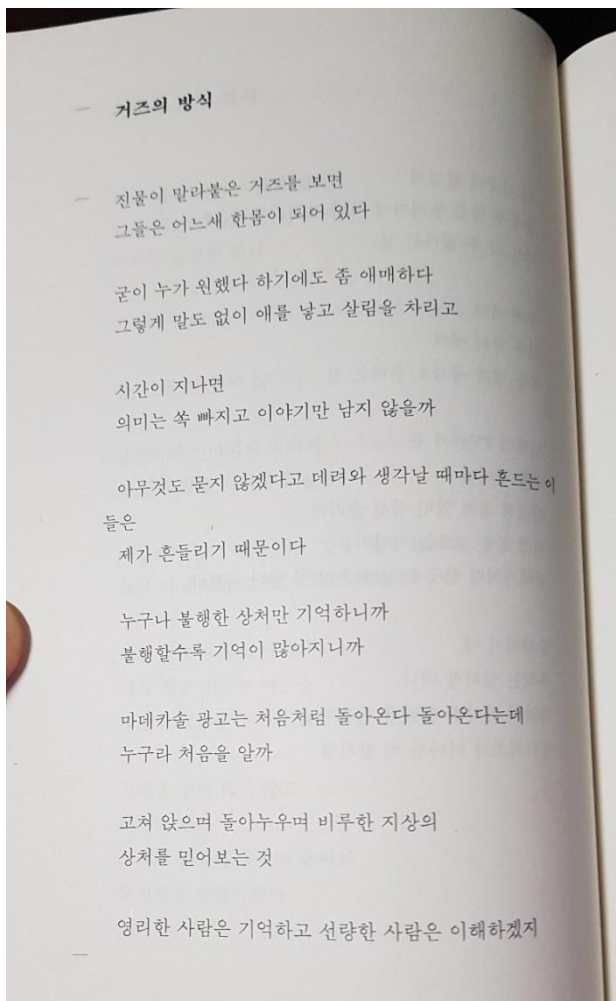
상담 일자: 11월 7 일

Q: 금쪽이의 고민이 무엇인가요?

A: 어떤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
또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지만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Q: 금쪽이에게 어떤 시를 추천해 주었나요?

1. 거즈의 방식



해석

4연: 잘난척 하고, 신경 쓰이게 하는 주변 이들을 나타낸다고 해석함.

5연: 누구나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다 보니
많다 느껴지는 것이라 전해주고 싶었음.

6연: 이전에도 힘든 적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간이 지나면 이
고민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 생각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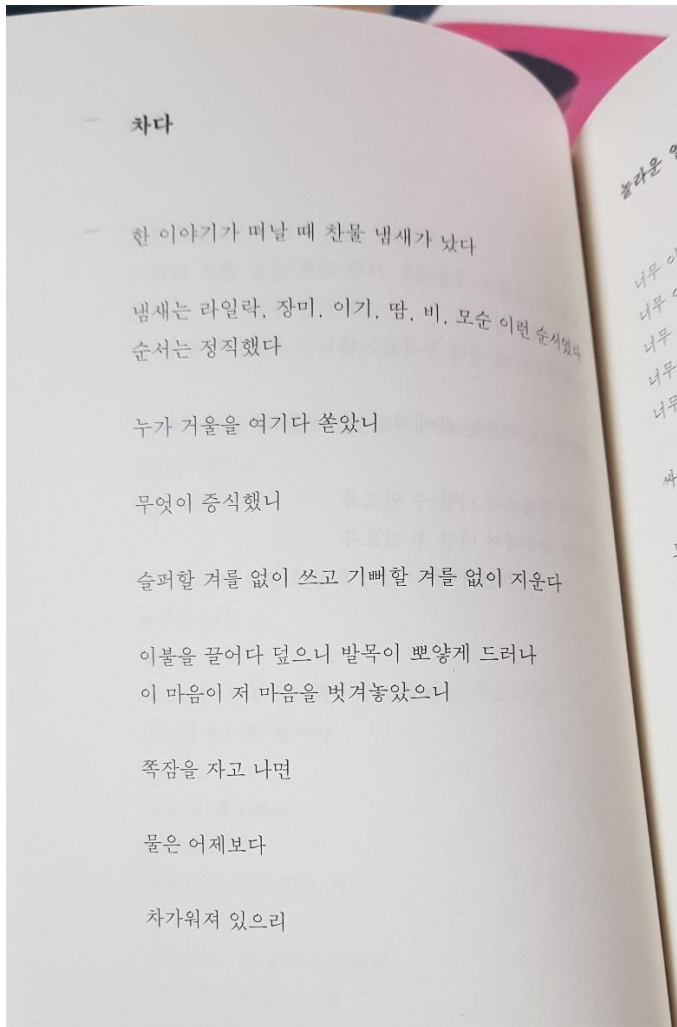
7~10연: 이 고민들을 통해 본인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였음

선정이유

시험 기간에 다들 가지는 고민이 있을 것 같다. 열심히 했지만 점수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 웬지 모르게 일이 전반적으로 다 안 풀린다는 기분이 들 때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시험은 그 순간의 수준을 나타낼 뿐 우리의 전부는 아니다. 이 시를 통하여
시험기간 속 고민들을 통해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 선정을 하게 되었다.

2. 차다



해석

선정이유

세상은 차갑고 바쁘다, 슬퍼할 겨를도 기뻐할 겨를도 없이 새로운 사건이 찾아온다. 우리에게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거울처럼 드러난다. 이불을 끌어다 덮으면 발목이 드러난다. 발목을 덮기 위해서는 머리가 다시 드러난다. 우리가 우리 몸을 이불러 다 덮을 수 없듯이 우리의 슬픔은 우리가 전부 가릴 수 없다. 쪽잠이 지나면 세상은 다시 차가워진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결국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온다.

노력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이 어제보다 차가워지듯이 금쪽이의 삶도 점점 변할 것이다. 의미 없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지금의 노력이 결국 우리의 세상을 조금씩 바꿀 것이다. 김쪽이가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을 무의미하지 않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